

# “준비부터 성장까지”...순천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단순 일회성 자금지원 방식 탈피  
안정 창업 4단계 프로세스 구축  
최대 2천만원 창업 성장 지원도  
공유오피스 등 지역 경제 마중물

순천시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두팔을 건어붙였다. 초기 창업자들이 겪는 자금 부족과 판로 확보 등의 극복을 돕기 위해 교육부터 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단순한 일회성 자금 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창업준비-사업화-실전 창업-성장-확산’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4단계 프로세스를 구축,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번 지원은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첫 단추인 창업준비단계에서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8주동안 ‘순천청년창업스쿨’을 운영해 아이디어 구체화에 박차를 가한다. 전담 멘토링을 통해 사업 아이템 발굴과 시장 분석, 사업 계획 수립을 밀착 지원하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향후 정부지원사업이나 실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

고 있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이후 사업고도화단계에 접어들면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천만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시제품 제작과 시장 검증에 청신호를 쏜다. 특히 올해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초기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실전창업단계에서는 청춘창고와 공유오피스 등 창업 공간을 내어주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단순 사무 공간과 집기 지원을 넘어 브랜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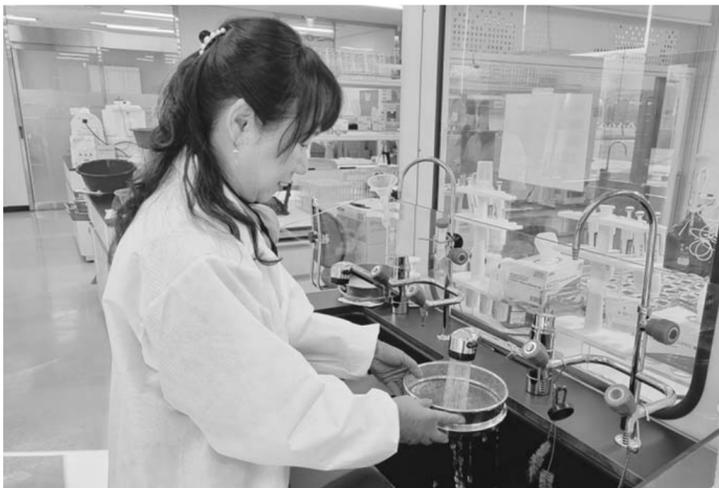
마케팅 실무 교육을 병행하며, 청춘창고 내 계절별 테마 행사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 및 직접 만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판로 개척까지 돕는다. 마지막 성장·확산단계에서는 연말 대규모 창업페스티벌을 개최해 수요생과 참여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성공 사례 발표와 성과 공유는 물론, 지역 예비 창업자 간 네트워킹과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튼튼한 자생력을 갖추도록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낸다. 단순히 창업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 이후 성장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창업지원 거점 공간인 ‘창업연당’을 전진기지 삼아 분기별 전문가 초청 특강을 열고,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는 1대1 맞춤형 ‘수요창업상담’을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 창업 소식지인 ‘창업문당’도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정보 접근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 창업자들이 불안감 없이 지역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순천이 명실상부한 청년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양홍렬 기자

## 화순군, 전남 첫 성토 농지 토양 분석 운영

우량 농지 생산성 보호·피해 예방  
pH·모래 함량 등 정밀 성분 검사

화순군이 개장된 농지법 시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우량 농지의 생산성을 보호하기 위해 전남 지역 최초로 성토 농지 토양 분석 지원에 본격 나섰다. 16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부터 농지 성토에 사용되는 흙의 적합성을 사전에 무상으로 검증하는 토양 분석 서비스를 전격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3일부터 농지개발사 전신고체가 전면 시행되면서 성토용 토양의 이화학적 성분 및 중금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현행법상 성토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전에 토양의 산도(pH)와 전기전도도(EC), 모래 함량 등을 정밀 분석한 공인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센터는 종합검정실의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체계적으로 토양 분석 등 작물 생육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3대 핵심 물리적 특성을 꼼꼼하게 측정한다. 분석 대상은 관내 성토 예정 농경지이며, 농



농산물안전분석센터 토양검정 담당자가 체계적으로 성토도양 모래함량을 분석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업인이 직접 채취한 토양 시료를 센터에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식 분석 결과서를 받아볼 수 있다. 단 성토 면적이 1천㎡ 이하이거나 높이가 50cm 이하인 소규모 작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신고 시 최대 3년 이하

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은순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농가의 값비싼 민간 기관 분석 비용을 덜어주고 부적합한 흙 반입을 원천 차단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고히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 여수시, 고향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오는 26-31일 방문 접수  
특산물 등 4개 분야 대상

여수시는 16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상공인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

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관광 서비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총 4개 부문이며,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직접 생산해 배송할 수 있는 업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한 뒤, 지정된 기한 내에 시청 정수와 고향

사랑기부금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5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업체를 최종 선정하며, 발탁된 업체는 6월30일까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제품을 등록한 후 기부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다채로운 지역 특산품이 답례품으로 발굴돼 따뜻한 기부가 지역 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은 최근 정철원 군수와 전남도, 국립정원문화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담양군 제공>

## 담양군, 내년 ‘남도정원 비엔날레’ 착수 보고회

50억 투입 경연대회·탐방 프로그램 등  
담양군이 남도 고유의 정원문화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점 추진 중인 ‘2027 남도정원 비엔날레’ 개최 준비에 나선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정철원 군수를 비롯해 전남도, 국립정원문화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사진> 오는 2027년 10월 죽녹원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릴 이번 비엔날레는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작가 정원 전시와 경연대회, 탐방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는 대규모 행사다. 특히 지난해 문을 연 국립정원문화원의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소재원과 관방제림 등 남도의 핵심 정원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자연과

예술, 생태와 도시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군과 전남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수립된 의견을 토대로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와 기반 조성 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 본행사를 차질 없이 치러내겠다는 구상이다. 김은주 산림정원과장은 “남도 특유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린 차별화된 비엔날레를 선보일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정원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

## 고흥군, 조선시대 ‘붕수 유적’ 보존 방안 마련

오는 18일 학술대회 개최

고흥군이 반도라는 특수한 지형을 활용해 구축했던 조선시대 독창적인 해안 방어망인 붕수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입증하고 체계적인 보존 방안 마련에 나선다.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18일 고흥종합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고흥 붕수 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활용 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흥 내 제5호 붕수와 보조 통신 시설인 요망에 대한 그간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지리지 기록상 유일하게 자체 붕수망을 운영했던 고흥군의 국방사적 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고흥지역 붕수의 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 조선시대 군사 편제와 요망 체계, 구조 기능 변화와 문화유산적 가치 등을 심도 있게 다루는 4개의 핵심 주제 발표가 이뤄진다. 이어 나동욱 영남성곽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종합 토론을 열고, 귀중한 역사 자산의 구체적인 보존 관리 및 현대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조선시대 해안 방어 체계의 정수를 보여주는 고흥만의 독보적인 문화유산을 학계 및 군민과 널리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 장흥군-우체국, 취약층 안부살핌 협력 ‘맞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장흥군은 “최근 장흥우체국과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장흥군은 사업 대상자 선정과 생필품 준비를 담당하고, 위기가구 발견 시 복지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맡는다. 장흥우체국은 집배원을 통해 대상 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

해 회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부 확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은 중장년 1인가구, 은둔 청년,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50가구를 대상으로 4월부터 추진된다. 우체국 집배원이 매달 두 차례씩 총 18회에 걸쳐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나 위기 상황이 발견될 경우 장흥군과 즉시 공유해 신속한 상담과 복지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우체국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홍=노홍렬 기자

##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하세요”

13-18세 대상...20일까지 신청

곡성군은 16일 “청소년들의 다채로운 여가 활동을 돕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청소년 문화바우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13-18세 청소년과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2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급되며, 문화 및 체육시설, 아·미용실,

안경점 등 등록된 84개 지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오는 2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사무소나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이 컸던 만큼 올해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활동폭을 넓히기 위해 신규 가맹점 모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철 기자